釋譜詳節의 校正에 대하여

安 秉 禧

오늘날 보통 쓰는 뜻의 校正은 印刷工程에서 原稿와 대조하여 活字의 脫落이나 誤植을 바로 잡는 일을 가리킨다. 그러나 원래의 뜻은 어떤 책에서 訛傳된 글자나 句節을 찾아서 證據를 가지고 訂正하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校正은 이 두 가지를 합친 뜻으로 쓰인다. 즉 일단 印出된 책에서 잘못되거나 빠진 곳의 修正을 가리키는 것이다. 原稿作成이나 印刷過程에서 아무리 正確을 기하더라도 訛傳된 誤字와 脫字는 있게 마련이다. 이미 完成된 책이지만, 그러한 誤謬는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現代는 正誤表로써 修正을 행하지만, 옛날은 책에 직접 校正을 하게 된다. 글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옛 사람들인데다가, 한번에 印出되는 部數가 그다지 많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校正은 흔한 것이다.[1]

그 校正은 여러 가지 方法으로써 행하여진다. 간단한 字畫에 그친다면 붓으로 加畫하거나 칼로 脫畫하게 된다. 脫畫은 그 部分을 칼로 오려내고서 白紙를 붙여 놓는 것이다. 그러나 글자가 하나 以上

1. 書籍 出版에서 철저한 校正은 예로부터 强調되어 왔다. 公的인 記錄에 나타난다. 世祖實錄 5年9月 庚辰條 참조. 더우기 成宗과 中宗朝에 편찬된 大典續錄과 後續錄의 禮典에는 校書館의 書籍 出版時 校正과 관련된 賞罰이 法律로서 規定되어 있다. 그것은 참고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書册印出時 監印官監校官唱准守藏均字匠 每一卷一字錯誤者 笞三十 每一字加一等 印出匠 每一卷一字 或濃墨或薄微者 笞三十 每一字加一等 並計字數治罪 官員 五字以上罷黜 唱准以下匠人論罪後 削仕五十 並勿揀赦前(元本字誤字 不在此限)

이것은 매우 가혹한 것이지만, 實際로 適用된 例가 있다. 宣祖6年(1573) 內訓과 皇華集의 印刷 不精이 문제되었을 때다. 그것은 校書館 提調인 柳希春의 그 해 2月—4月 日記草에 소상하게 나타나 있다. 여기서 古書의 드물지 않은 校正이 理解되는 것이다.

완전히 잘못된 경우에는 複雜한 方法에 의하게 된다. 誤字는 칼로 써 오려낸 뒤에 고쳐 쓰거나 印刷하여, 다시 말하면 補書하거나 補印하여 붙이고, 脫字가 되어서 빈 자리는 붓으로 補書함이 普通이다.[2] 그밖에도 脫字를 오려내지 않고 옆에 쓰는 일, 즉 改書하는 일이 있다. 또는 「甲字當作乙字」와 같이 紙頭(欄上)에 附箋을 달거나 加印하는 일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方法이 책에 따라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以上이 同時에 쓰이고 있다.

國語史 資料를 다룸에 있어서 校正이 문제되는 것은 그 方法이 아니다. 주어진 資料에서 校正을 確認하고, 그것을 國語史의 觀點에서 評價하는 것이 重要한 것이다. 校正된 책과 校正되지 않은 책이 다 있는 경우, 그 둘을 比較하면 印刷上의 단순한 脫字가 아니라, 語彙變化 등으로 말미암은 例도 나타난다. 이것은 改書로써 校正이 행하여진 資料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때 改書는 無視되고, 校正되지 않은 脫字가 오히려 印刷되었다는 理由로써 資料로 採擇되기까지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校正이 어떻게, 그리고 왜 나타나는가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려는 校正이 國語史 資料에 관해서 論議 안 된 것은 아니다. 活字本 楞嚴經諺解에서 특히 그것이 問題되었던 것이다.(金完鎭1960 참조) 楞嚴經諺解에는 活字本과 木版本이 있는데, 活字本은 每卷 張1a 바른 쪽 紙頭(欄上)에 「校正」이란 印記가 있고, 實際 本文에서 상당한 部分이 朱墨으로 改書되어 있을 뿐 아니라, 드물지만 補印까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活字本은 校正本이라 불리어졌다. 그러나 이 校正이 어떤 性格인가는 아직 解決되지 않고 있다. 活字本보다 뒤에 刊行된 木版本 印出을 위한 底本이라는 解釋이 널리 流布되어 있다.[3] 그러나 確定된 飜譯本으로서 木版本 楞嚴經諺

2. 前註에 引用된 大典後續錄의 夾註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誤字는 물론이지만 脫字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조차 있다. 善本인 南明集諺解下卷의 「穢(35b), 鷄(60b)」의 讀音이 그것이다.
3. 活字本이 木版本보다 앞선다는 것은 定說이다. 같은 책에 活字本과 木版本이 다 있으면 活字本이 일반적으로 앞서는 점과 楞嚴經의 飜譯이 活字本은 잘못되어 있다는 점이 그 根據가 된다. 이러한 刊年의 相對年代는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絕對年代는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活字本은 世祖8年(天順6, 1462) 10月에 印出되었다고 생

解가 나온 뒤, 그것에 따라서 이미 頒布된 活字本을 校正한 것이란 解釋도 可能하다. 現在로는 두 解釋이 다 蓋然性을 갖지만, 後者가 더 큰 蓋然性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한다.[4] 後考를 기다린다. 다만 活字本이 校正되어 있고, 또 그것이 木版本에 完全 一致하는 점은 지금까지의 研究成果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木版本에도 「校正」이란 印記를 갖는 책이 現存한다.[5] 東國大學校圖書館 所藏의 全秩과 一簑文庫의 卷Ⅴ, 가람 文庫의 卷Ⅳ가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木版으로서는 原刊本에 該當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實册의 內容을 檢討하면 校正에서 差異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阿難, 般若의 「阿, 般」에 대한 讀音 表記에 나타난다. 東大本과 一簑本이 「항, 반」으로 되어 있는 데 대하여, 가람本은 校正되

각된다. 그 해 9月에 된 世祖 跋文의 夾註에 校書館 提調 鄭顯祖에게 活字로 400部를 印出하라는 王命이 있었으며, 同 10月의 金守溫 跋文에 다음과 같이 明記되었기 때문이다.

旋下校書館 隨即模印 始於是年六月 至多十月 而事已成矣

다음 木版本의 刊年은 進箋文의 年月인 이듬해 8月이라 생각된다. 곧 보게 되겠지만, 「阿難·般若」의 讀音 表記로 보아 木版本 刊年의 下限도 法華經諺解의 刊年을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現在 알려지고 있는 楞嚴經諺解의 刊年은 木版本의 그것이고, 活字本은 그보다 1年 앞서는 것이라 하겠다.

4.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앞으로 보게 될 바와 같이 釋譜詳節은 解册되어 校正되었으나 楞嚴經諺解 活字本은 모두 成册된 채로 校正된 점, 둘째 卷Ⅴ 끝 義解의 「瘡…酢」部分이 無界 2行으로 板刻 印刷된 附箋으로써 補充되었는데, 단순한 木版本의 底本이라면 行과 글자의 크기를 活字本에 맞추어 印刷할 아무런 必要가 없는 점이 그것이다. 그리고 前者의 傍證으로서 같은 册의 活字本이 없다는 事實이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卷Ⅴ는 두 部가 있는 것이다. 活字本의 裝釘의 훌륭한 점도 木版本을 改刊하기 위한 底本이라 하기 어렵다.

5. 校正의 印記가 있는 책은 대체로 善本이기는 하지만, 印記만을 全的으로 믿고 校正本이라 할 수는 없다. 近者 册儈에 의한 僞造도 分明히 있는 듯하다. 1959年 影印 底本인 東國大學本의 印記는 다른 것과 若干 다르다. 따라서 어느 하나는 적어도 僞造일 것이다. 이 僞造 與否와 반드시 관련된 것은 아니나, 東國大學本의 卷X은 亂丁本임에 留意할 것이다. 곧 本文 第4張은 跋文의 그것이 잘못 끼어져 있다. 앞뒤 張을 對照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 裝綴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어 「ᄒᆞᆞᆷ, ᄇᆞᆞᆷ」로 補印되어 있는 것이다.

이 校正을, 活字本을 위시한 異本에서 調査하면 더욱 흥미있다. 活字本은 「항, 반」으로 印刷되어 아무런 校正이 되어 있지 않으나 後代의 重刊本들인 木版本에서는 「ᄒᆞᆞᆷ, ᄇᆞᆞᆷ」로 아예 印刷되어 있다. 이러한 事實은 책의 年代와 連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活字本은 물론이고 木版本이 처음 印出될 때까지도 「阿, 般」의 讀音을 「항, 반」으로 알고 있었으나, 印出 後에 佛經 知識이 深化되면서 그 잘못을 깨달아 修正한 데 말미암은 것이다. 다른 國譯 佛書와의 比較로써도 支持된다. 楞嚴經諺解를 境界로 하여, 그 前의 釋譜詳節과 月印釋譜는 「항, 반」, 그 後의 法華經諺解등은 「ᄒᆞᆞᆷ, ᄇᆞᆞᆷ」이기 때문이다.[6] 요컨대 이 두 漢字 讀音의 校正이, 책의 年代推定에도 校正의 檢討가 利用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校正 檢討의 또 다른 重要性의 一面인 것이다.

이제 本論에 들어가서, 釋譜詳節의 校正本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그런데 現存하는 釋譜詳節은 原刊本으로서 卷VI, IX, XIII, XIX, XXIII, XXIV와 重刊本으로서 卷XI이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서 卷XXIII, XXIV와 重刊本인 卷XI은 校正이 전혀 되지 않은 책으로 本論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더우기 卷XXIII, XXIV는 原本 크기의 復元版이 1967年, 縮小版이 1973年(金英培) 卷XI은 縮小版이 1959年 影印刊行되어 있어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다만 重刊本인 卷XI에 대하여는 약간의 說明이 必要하다. 이 책을 이른바 弘治版, 곧 燕山君 1年(弘治8, 1495) 仁粹大妃에 의하여 刊行되었다는 見解가 있기 때문이다.(沈載完 1959 참조) 그러나 實册의 調査와 關聯記錄의 檢討로 이 見解에 따를 수 없다.[7] 結論부터 말해서 明宗 10年代 全羅道 無量

6. 이들과 꼭같은 性格의 校正에다 解脫의 「解」字가 「갱」에서 「행」로 된 것을 追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갱」 自體가 「행」에서 校正된 것이다. 뒤의 釋譜詳節의 說明에서 이 「解」가 다루어질 것이므로, 여기서는 일단 保留하여 둔다. 그런데 阿難의 「阿」는 刊年이 法華經諺解보다 늦은 世祖10年의 阿彌陁經諺解에서 「항」(3b)로 되어 있다. 이는 月印釋譜의 그 部分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ᄒᆞᆞᆷ의 使用도 같은 事實에 속한다.

7. 이른바 弘治版이란 根據는 같은 版本으로 現存하는 永嘉集·心經·

寺에서 覆刻된 寺刹本이라 생각된다.

그것은 出版 關聯者의 名單으로 確認되는 것이다. 먼저 이 책에 合綴된 八相圖 欄外 施主名에 蔡仲石(1a, 2a, 3a). 崔守長(4a, 5a)이 있다. 이들은 明宗 14年(嘉靖 38, 1559) 無量寺에서 重刊된 月印釋譜 卷XXIII과 같은 절에서 3年 뒤인 明宗 17年 重刊된 月印釋譜 卷XXI의 卷末 施主秩에 보이는 이름들이다. 八相圖는 다른 책에서 떼어 왔을 可能性도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이 책의 刊年 推定은 삼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八相圖의 針眼에 나타나는 심지는 새 것이라고 한다. (沈載完 1959 : 24.) 그러나 이 책 끝장의 남은 종이 조각에 施主秩로 보이는 若干의 文字가 判讀되어 우리의 刊年을 뒷받침하여 준다. 그 文字는 「貴孫(44a)·楫(44b 끝)」인데, 月印釋譜 卷XXI의 「朴貴孫兩主」(228b), 卷XXIII의 「化主玄絹」(98b 끝)과 꼭같은 記名의 殘字라 할 것이다. 楫과 絹은 同音字지만, 다같이 關聯者 名單의 끝자리에 있을 뿐 아니라, 이름에서 同音字 通用은 앞으로 보게 될 釋譜詳節의 核心者 署名에서의 「金重賢·友仁」에 대한 「仲賢·右仁」, 宋錫夏(1942: 26)에서 밝혀진 宣祖6年(隆慶6, 1578)의 毘盧寺版 月印釋譜 卷Ⅶ의 施主인 「幸思·金仲近·金連香」에 대한 같은 책 卷Ⅷ의 「行思·金仲斤·金連享」에서 보는 것이다. 따라서 明宗10年代 無量寺에서 행해진 一連의 重刊事業의 하나로 이 釋譜詳節 卷XI은 出版된 것이라 하겠다.

校正이 행해진, 그러므로 校正本이라 하여 여기서 다루게 되는 卷VI, IX, XIII, XIX의 4卷 4冊은 아는 바와 같이 國立中央圖書館 所藏으로 한글학회에서 한글115—25호(1955—59)에 連載로 影印하고, 이어 單行本으로 出版하여 널리 紹介되었다. 이 影印도 다른 影印本들

金剛經諺解의 卷末에 있는 學祖의 跋文에서 釋譜詳節 20部를 刊行했다는 記錄이 있는데, 釋譜詳節의 重刊本은 이 卷XI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책을 調査해 보면 仁粹大妃에 의해 刊行된 燕山君版이라 할 수 없다. 첫째 刻法과 紙質 등이 燕山版인 永嘉集에 比較가 안 될 程度로 조잡하고, 둘째 張에 따라서는 欄外에 施主名을 위한 墨等이 있어서 寺刹本인 것이다. 그리고 永嘉集등의 跋文에 보이는 刊行書目은 世祖朝 册板에 의한 後刷本이지, 이 책과 같은 覆刻本이 아니다. 따라서 문제의 釋譜詳節은 月印釋譜 20部라고 생각된다. 修正된 月印釋譜의 册板이 있는데도 釋譜詳節을 새삼 覆刻할 必要는 없겠기 때문이다. 딴 記錄에 月印釋譜를 釋譜詳節이라고만 한 일이 있는 것이다.

과 마찬가지로 책의 書誌的 事項을 알려주지 않을 뿐 아니라, 校正 部分도 反映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原本의 本文을 빠뜨린 部分까지 나타난다. 그것을 밑줄을 쳐 보이면 다음과 같다.

ᄆᆞᅀᆞᄆᆞ로 디니면 ᄂᆞ외 (IX, 20b 1)

가迦셥葉의 옰ᄃᆞᆯ 아ᄅᆞ샤 부톄나아보 (月印上, 53 b 8)

이것은 단순한 錯誤라고 하겠지만, 影印過程에서 原本에 變改를 加했기 때문에 쉽게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한 變改 가운데서 校正 그것은 뒤에 說明하겠는데, 그것과 관련된 事項을 먼저 밝혀 두기로 한다. 校正의 이해를 위해서 必要한 일인 것이다.

첫째로 原本 欄上에는 校正者로 보이는 署名이 있으나, 影印에는 없어져 있다. 改裝時 책의 天地가 약간 짧아졌으므로 이들 署名은 한두 字 잘리어진 것이 많다. 다음과 같은 4名의 署名이라고 생각되는데, 나타나 있는 대로 보인다.

(1) 金重賢(IX, 40b)·重賢(VI 21b)·重현(XIII, 6b)·仲賢(XIX, 9a)·賢(VI, 23)·듕현(IX, 28a)
(2) 韓衆伊(VI, 41b)·韓衆(IX, 2a)·韓중(XIII, 16a)·한중(XIII, 46a)
(3) 朴ᄃᆡ손(XIII, 38b)·治孫(XIII, 38b)
(4) 右仁(VI, 11a)·友仁(IX, 39a)·友신(XIII, 5a)·우신(XIII, 8a)

이들이 校正者라고 한다면, 여기 同音字인 漢字의 通用과 韓衆伊의 「伊」字 添記 등으로 미루어서 그들의 身分을 推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官員이 아니라 胥吏인 듯이 보이는 것이다. 署名의 한글 表記도 그것을 뒷받침한다. 적어도 當時 文獻에 官員이 스스로 한글로 署名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8]

둘째, 卷VI에 국한된 것이나 欄上에 있는 月日이 影印에는 없어져 있다. 署名과 같이 한두 字 잘라져 있는데, 9月 9日부터 12日까지의 4日이다.

8. 世宗31年(1449)의 舍利靈應記 卷末의 出版 關聯 匠人의 이름에 한글이 나타나고 있다. 精勤入場人名이라 하여 「韓실구디·金올마대·石강쇠·朴곰쇠」 등이 있는 것이다. 또 崔萬理의 正音反對 上疏文에 있는 「驟令更鞫十餘人訓習」도 이것과 관련되는 것인가 한다. 그리고 이들 署名의 한글 表記에서 東國正韻이 止揚되고 있음도 注目된다. 安秉禧 1971: 374-75 참조.

(1) 月初九入(4a)·初九日入(6a)
(2) 十日入(8a)·九月十日入(10b)
(3) 十一日入(20a)·月十一日(24a, 25a)
(4) 月12日(28a, 30a, 35a)·九月十二日(31a, 34a)

하루에 7~10張 程度의 校正을 한 셈이다. 4名이 한 校正이라면 얼마나 조심스레 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앞으로 校正 內容의 檢討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다.[9] 그리고 日字가 九月인 것도 注目된다. 卷IX 뒤 表紙 안쪽의 「正統拾肆年貳月云云」의 記錄으로 보아서, 校正은 世宗 31年 2月 以前에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卷VI은 世宗 29年이나 30年의 두 9月 중에 校正된 것이라 하겠기 때문이다.

세째, 原本은 解册되어 校正된 것이며, 段落이 지는 곳을 가위로 잘라서 이은 張이 꽤 있으나, 影印에는 그 흔적이 없다. 위에서 말한 校正, 署名, 日字가 影印에서 削除되었기 때문에, 解册 校正임을 알리는 版心의 校正, 中縫의 署名, 釘線에 近接된 日字 記錄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段落에 따르는 繼紙도 影印으로는 識別되지 않는다. 그것을 確認된 部分의 뒤 쪽 첫 두 字로 보이기로 한다.

VI 6a5	그ᄢᅴ	11b7	偸羅
13a3	舍衛	15b7	須達
26a7	그나	41a3	○世
IX 20b2	그ᄢᅴ	22a7	文殊
29a6	그ᄢᅴ		
XIII 37a3	그ᄢᅴ		
XIX 26a5	그ᄢᅴ		

이들 繼紙의 이은 앞뒤 部分을 세밀히 檢討하면 달리 保管되다가 합쳐진 것을 알게 된다. 특히 VI, 13과 26, IX, 20이 눈에 띄게 다르고, XIX, 26의 앞 4行을 가진 종이는 아예 없다. 여기서 이 책들은 解册되었을 뿐 아니라, 같은 張도 段落에 따라 가위질로 切斷하

9. 署名과 日字의 記錄은 組版과 결부시켜 說明될 수 있다. 校正이 행해진 釋譜詳節을 校正刷의 製册이라 보고, 署名은 組版者, 日字는 組版日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校正 內容을 다른 책에서 調査해 보면 組版 過程에서의 校正刷란 解釋은 成立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再論될 것이다.

여 校正된 것이 製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卷VI에서 繼紙가 많은 것은 月印千江之曲의 落張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 落張은 現在 한 곳에 裝綴되어 있으나 본래는 책장 가운데 適宜 貼付되어 있었다고 한다. (江田俊雄1936 : 46.) 즉 VI의 5와 6 사이에 其145, 146을 포함하는 月印上 53의 1張, 11 다음에 其147을 포함하는 半張, 12 다음에 其148, 149인 月印上 54의 1張 15 다음에 其 150 • 151 • 152인 月印上 55의 1張, 16 다음에 其153 • 154인 月印上 56의 1張, 또 IX의 20 다음에 其254 • 255인 月印中 22의 1張이 挿入되어 있었던 것이다.[10] 요컨대 繼紙와 月印千江之曲의 落張은 이 책의 校正이 月印釋譜의 編纂을 위한 基礎作業의 性格임을 강력히 示唆하고 있다. 이제 校正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그 性格을 究明하기로 한다.

校正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印出過程에서 補印으로써의 校正과 印出 後에 筆墨으로써의 校正이 그것이다. 後者는 活字 脫落으로 나타난 空白에 記入된 補書와 잘못 印刷된 곳을 改書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補印된 곳을 圈點으로써 보인다. 단순한 誤印을 바로잡은 것인데, 例가 많지 않다. 國語史 資料로는 價値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師ᄉᆞᆼ(IX, 21b7)　　니ᄋᆡ다(IX, 27b4)[11]

---

10. 이 報告는 不完全한 것이다. 其174. 175를 포함하고 月印上, 64의 1張에 대한 記述조차 없다. 더욱 細檢하면 모두 9張14面이다. 南廣祐(1962 : 3-4) 半張인 影印의 第1面은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繼紙인 XIII, 37에 貼付되어 있었을 듯하다. 法華經 方便品 第二의 첫 部分에 해당되는 內容이기 때문이다. 曲次는 釋譜詳節 XI의 調卷上 差異로 月印千江之曲에서는 其300, 月印釋譜에서는 其270 內外가 아닌가 한다. 첫머리가 法華經 信解品第四인 月印釋譜 XIII의 月印千江之曲部가 其279로써 시작되고 (現存本은 其281의 本文이 시작되는 第2張부터 남아 있다) 있어서 譬喩品第三을 고려하면 方便品에 대한 歌詞는 其270부터일 것이다. 釋譜詳節 XI에 대한 歌詞 約30曲(釋譜詳節 XI 內容의 折半에 해당하는 月印釋譜 XXI에는 18曲이 있다)이 法華經 앞에 들어갈 것이므로 單行本에서는 결국 其300이 될 것이다.

11. 「니ᄋᆡ다」의 「다」字는 「타」字에서 한 劃을 따낸 것이다. 補印과는 다르나, 칼로 誤印 部分을 따낸다는 점에서 함께 다룬다. 「印出後 校正된 中期 以後의 國語史 資料」란 題目으로 행한 국어학회 月例發表會에

威(XIII, 967) 塞(XIII, 15b5)
生ᄉᆡᆼ(XIII, 54b2)

印出後의 校正 가운데서 空白 部分에 행한 補書도 그다지 많지 않다. 처음 例示된 婆字를 제외하고는 모두 漢字의 한글 讀音 表記에 관한 것이다. 그러한 한글의 補書도 漢字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XIII : 婆(14a1) 來(27b4) 妙(35a7・b6) 便(62b7)
XIX : 功(9b8) 體(11b4) 三(11b5・8) 世(11b6, 16b3)
二(11b7, 13a6, 14a6) 百(11b 6・7・8) 三(12b7)
方(13a5) 疊(11b7) 千(11b3) 得(35a4)

이들 補書도 補印과 마찬가지로 活字의 不足등에 의한 錯誤를 修正한 것이라 하겠다. 卷XIX, 11-13에 이 補書가 특히 많은 것은 이들이 夾註에 該當되는 張임에서 理解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改書는 量的으로 가장 많을 뿐 아니라, 資料로서 貴重한 價値를 가지는 例가 적지 않다. 卷Ⅵ부터 차례로 例示한다. 다만 글자와 관계없이 행해진 校正, 가령 아무 意味없이 나타난 點과 畵에 朱點을 찍은 따위 (이들에서 우리는 校正이 얼마나 세밀한가를 더욱 느끼게 된다)와 중요하지 않은 旁點은 제외하기로 한다. 괄호 안이 改書다.

VI : 酉ᄋᆞᆼ(ᄋᆞᆼ 1a5) 息ᄉᆡᆨ(ᄉᆡᆨ 5b4) 奇ᄀᆡᆼ(ᄁᆡᆼ 7a5・6)
梨ᄅᆡᆼ(ᄅᆡᆼ 10a8) 童ᄃᆞᆼ(ᄃᆞᆼ 14a6) 槃(般 29a1) 勞ᄅᆞᆼ(ᄅᆞᆼ 31a2・b3, 32a2・b1・7)
IX : 化황(・황 1a2) 部ᄇᆞᆼ(ᄇᆞᆼ 1b5) 河항(항 2b5) ᄒᆞ며(흠과 11b8)
優ᄒᆞᆼ(ᄒᆞᆼ 17b7) 塞ᄉᆡᆼ(ᄉᆡᆨ 17b7) 分분(분 18a 2・3・4, 22b7, 32a5) 奇ᄀᆡᆼ(ᄁᆡᆼ 30b8)
XIII : 堀콘(꿇 1a2) 論・론(:론 2b8, 17b5, 21a6) 化:황(・황 6a7・b1, 14b7…) 塞ᄉᆡᆼ(ᄉᆡᆨ 12b7, 14a1, 15b5…) 奇ᄀᆡᆼ(ᄁᆡᆼ 14b7, 25a5) 部ᄇᆞᆼ(ᄇᆞᆼ 16b4) 鬼・귕(:귕 24b3, 26a5) 裟빵(상 32a1) 數:숭(・숭38a4) 써(써 38a6) 解헹(갱 40a1, 43b4) 最:쥉(・쥉 41b1・

서 訓民正音解例本을 그러한 例로 든 일이 있다. 鷺字의 終聲, 快字의 讀音「쾌」, 入聲字의 旁點을 例證으로 하였던 것이다. 東國正韻이 刊行될 때까지는 漢字音表記가 流動的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釋譜詳節의 경우는 通用의 難點이 온당한 理由가 될 것이다. 流動的인 漢字音으로 그 방대한 책에 注音을 한다는 일은 생각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61b4) 上·쌍(:쌍 45a7, 46b4) 鈍툰(똔 57b3) 威(滅 62a5)
XIX : 붕(·붕 1a3)·그(그 6b2) 라(·라16b7)

이들을 보면 卷XIII에 가장 細密한 校正이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卷XIX에서는 塞字의 讀音이 校正되지 않고 있는데, XIII에서는 모두 校正되어 있다. 더우기 改書한 欄上에는 附箋까지 있는 것이다. 즉 「論平聲(2b8, 17b5, 21a6) 化去聲(6a7·b1, 14b7) 塞今(14a1, 43a6) 部:뽕(16b4)」 등등. 또한 이 책에는 중요한 誤字로 생각되는 「세」(38a6)의 欄上에 改書한 同一 朱墨으로 「大過」라 써 놓고 있다. 요컨대 校正, 특히 改書만을 본다면 XIII과 XIX는 精密과 疎漏로 對照되고 있다. 이 對照는 앞에서 본, 책에 따른 繼紙의 多寡와 연관되는 事實로 생각된다.

大體로 繼紙는 月印釋譜 編纂의 基礎作業으로서 貼付된 月印千江之曲이 該當되는 段落에 따라서 나타난다. 그것이 卷VI에 많은 것은 挿入된 月印千江之曲의 落張이 많았던 것으로, 우리는 說明하였다. 그러나 이 說明만으로는 VI에 該當되는 落張이 많은 理由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록 基礎的이지만 編纂作業이 本格的으로 着手되지 못한 데 그 源泉的인 理由를 돌리게 되는 것이다. 책에 따라서 校正의 精密度가 다른 것도 作業이 고루 徹底하게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사실 月印釋譜의 刊行은 이 校正이 행해졌을 때보다 거의 10年에 가까운 뒤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4卷 4册의 이들 책은 釋譜詳節 刊行 直後에 있었던 月印釋譜 編纂의 아주 初步的인 段階를 反映하는 셈이다.

다음 이들 改書는 漢字音이 壓倒的임을 느끼게 한다. 改書의 價値도 주로 거기 있는 듯하다. 固有語의 改書도 副動詞를 動名詞 「홈과」로 修正하고 XIX에서의 旁點 校正 등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으나 量이 너무나 적다. 단순한 誤印인 「쌔」의 改書가 고작 追加될 뿐이다. 그런데 漢字音의 改書는 「童」과 같이 단순한 誤印인 듯한 例도 있지만, 大部分이 原稿에서의 誤謬를 修正한 것으로 보인다. 이 原稿 校正은 東國正韻이 엄격히 適用되고 佛教 知識이 深化된 데 그 契機가 있다고 하겠다. 前者가 「酉, 息, 奇」를 위시한 거의 모든 改書를 가져 왔다. 여기서 東國正韻의 漢字音 表記에의 適用이 특히 그 初期에 있어서 容易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後者는 「優婆塞,

書闍堀出, 解脫」의 「塞, 堀, 解」등 若干의 例를 改書하게 하였다. 이는 楞嚴經諺解에서의 「阿難·般若」의 校正과 같은 것이다.

이상으로 釋譜詳節의 校正 部分에 대한 說明을 마치기로 한다. 책이 刊行된 2年 안에 행해진, 그리고 細密하지만 고르지 못한 校正임에도 불구하고 釋譜詳節은 상당한 誤謬를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말하고 있다. 改編되어 刊行될 運命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改編에 勞心焦思하였다는 世祖의 月印釋譜 序文은 이런 側面에서도 理解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이 校正된 部分이 月印釋譜 등에는 反映되어 있을까. 이 問題와 함께, 다른 관련 文獻의 경우도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校正의 價値가 다시, 그리고 새로이 確認될 것이다.

먼저 校正의 흔적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한, 釋譜詳節의 現存本을 보면 原刊本과 重刊本 모두 校正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改書된 몇 개의 例만 들어 둔다.

奇긩(XXIV, 19a4, 22b3)
塞싱(X, 7b3)
解헁(XXIII, 9b8; XXIV, 16a1)
化:황(XI, 20aI, 8b2; XXIII, 10a3, 12b6)

校正된 책보다 卷次가 뒤진 XXIII, XXIV에서 一切 校正되지 않고 있는 事實은 우리의 改書가 組版 過程에서의 校正이 아님을 말한다. 組版이 校正刷라면 당연히 修正되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解册 校正이지만, 印出後 改編과 관련된 作業임이 다시 確認되는 것이다.[12]

다음 月印千江之曲 上卷을 보면, 大部分 改書된 것과 같이 印刷되어 있다. 물론 終聲ㅇ은 考慮 밖이다.

論론(25a) 鬼 : 귀(25b) 化·화(31b, 39b) 勞롱(58a, 59b)

12. 앞에서 말한 楞嚴經諺解 活字本에 대한 한 解釋, 곧 頒布하기 위한 誤謬의 校正(現代의 校正表에 필적하는)이라는 解釋을 여기에도 適用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質疑가 있겠다. 그러나 解册 校正인 점, 欄上의 校正者 署名과 附箋 등은 改編과 관련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頒布用의 校正이 결코 아닌 것이다.

改書된 대로가 아닌, 改書되기 前의 印刷된 모습도 드물지만 나타난다.

上·쌍(68b)

이로써 月印千江之曲의 刊年에 대한 釋譜詳節과 비교시킨 相對的 年代에 대한 推定이 可能한 것이다. 적어도 釋譜詳節보다는 뒤진다고 하겠다. 刊年도 著作 年代의 先後와 一致되는 셈이다. 이에 대한 傍證이기도 하겠는데, 月印釋譜와 法華經諺解의 該當 部分은 改書된 대로 印刷된 점이 指摘된다. 月印釋譜 IX는 釋譜詳節 IX와 같은 內容인데, 改書 部分은 다음과 같이 印刷되어 있다.

化 ·황(5a3) 部뿡(5b7) 河행(9a5) 優흫·塞슥(36下a3) 分뿐(36下a5·6) 奇끵(51a4)

法華經諺解 I은 XIII에 일치되는 內容인데, 改書와 같이 印刷되어 있다. 佛教 用語의 例만 보인다.

優흫塞슥(59b, 63b) 堀꿇(19b)

그런데 解脫의 「解」字 讀音은 改書와 다르게 나타난다. 매우 흥미있는 사실이다. 즉

解행(140b, 142b), 150b 등)

처음 나타난 原文의 그 글자에는 「音下」(139b)로 夾註까지 있어서 다른 경우와는 달리 읽혀짐을 注意하고 있다. 이 책에서 비로소 讀音이 고쳐진 例라 하겠다. 月印釋譜는 물론이고 楞嚴經諺解도 改書와 같이 되어 있다.

解갱(月釋XVII, 48a, 楞嚴V, 5b, VI, 8a)

月印釋譜의 例는 같은 內容인 法華經諺解(VI, 8b·17b)에서 물론 「행」다. 楞嚴經諺解의 例도 「阿難·般若」가 校正된 책에서는 「행」로 補印되어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서 이들 漢字 讀音이 校正되어 册板의 埋木으로 印出된 책도 있다. 어떻든 여기 楞嚴經諺解가 가지는 過渡的 性格을 다시 볼 수 있다. 요컨대 우리의 關心은 「阿難·般若」와 마찬가지로 「解脫」의 정확한 讀音 究明에 있지않다. 表記된 讀音의 變遷이 年代順으로 나타나는 데 있다. 즉 釋譜詳節은 「행」, 改書와 月印釋譜 및 活字本과 無校正 木版本과 法華經부터는 「행」라 되어,

變遷의 順位와 年代를 한 눈에 보여 주는 것이다. 작은 事實이지만, 이 점에서도 改書의 정밀한 調査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釋譜詳節의 校正과 그것이 提起하는 문제를 보았다. 문제된 月印千江之曲의 刊年, 月印釋譜에서 法華經諺解에 이르는 미묘한 漢字音表記의 變遷에 대하여 흥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校正이 단순히 그 책에 대한 資料로서의 評價에 利用될 뿐 아니라, 다른 文獻의 硏究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釋譜詳節의 校正은 말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행한 校正의 內容과 책의 書誌的 紹介가 校正本인 卷VI, IX,XIII,XIX의 올바른 利用에 活用되고, 관련 文獻과의 比較로 얻어진 結果가 國語史 硏究에 약간의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것을 契機로 다른 文獻의 校正에 대한 檢討도 활발히 일어나서, 정확한 資料를 바탕으로 한 硏究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곳에 우리의 참된 意圖는 있는 것이다.[13]

參 考 文 獻

金完鎭(1960), 능엄경언해에 관한 몇가지 과제. 「한글」 127.

沈載完(1959), 解說 釋譜詳節 第十一(影印). 大邱.

安秉禧(1971), 十五世紀의 漢字音 한글 表記에 대하여. 「金亨奎博士頌壽紀念論叢」. 서울.

柳希春(1936—1938), 眉巖日記草 1-5(朝鮮史料叢刊 第8). 서울.

江田俊雄(1936), 釋譜詳節과 月印千江之曲과 月印釋譜. 「朝鮮」. 255.

宋錫夏(1942), 月印釋譜考. 「韓國民俗考」(1960) 再收.

13. 이 글의 槪要는 1973年 6月 국어학회 月例發表會에서 발표된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한 報告書의 一部分을 獨立시킨 것이다. 體裁나 論文으로서의 論旨에서 여러가지 未備點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앞으로 公刊될 報告書에서 補完될 것이다. 讀者의 諒察을 바란다.